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보안관리팀

재미없는 보안 교육, 떠나라

흔히 정보보호는 IT 분야의 3D 업종으로 불린다. 그래서일까,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중 여성 담당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일례로, 기업의 보안팀을 찾아가는 이 코너에 등장했던 여성은 손에 꼽을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3D 업종'에 특이하게도 여성으로만 구성된 보안팀이 있다고 한다. 여성 3인조 보안팀. 그래서 더 눈에 띄는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보안관리팀의 '아무진' 보안 활동을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글·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보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매년 KISA가 개최하는 정보보호大賞 시상식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기업이 있다. 영상기기의 칩을 생산하는 씨앤에스테크놀로지(C&S Technology)가 바로 그들이다. 영상기기의 칩 제조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들은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보안이 강화된 기업으로 분류된다.

■ 불협화음 잠재운 경영진의 지지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보안수준과 보안관리팀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차원에서 매년 정보보호대상에 참가하고 있어요. 상을 받게 되면 ‘상을 받을 정도로 괜찮은가 보다’라고 사내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죠.”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보안관리팀 진나니 대리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쟁쟁한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언제나 수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이들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도 중소기업에게는 언제나 뒷전이라는 상식(?)이 통용되는 정보보호 분야에서 말이다. “보안관리팀은 기술문서와 프로그램 소스를 포함해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는데, 정보보호의 대상 하나하나가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매우 민감한 데이터와 자산이기에 보안은 필수적이죠. 기업 자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라며 진 대리는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보안수준이 강화된 계기를 밝힌다. 앞서 언급했듯, 이들이 보유한 영상기기 칩 분야의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단순하게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이들은 보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보안에 대한 투자와 함께 이들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보안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이 그러하듯, 그 적극적인 동참과 전폭적인 협조가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보보호 솔루션을 도입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PC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안활동이 전개되면서 사내 반발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내에서 생긴 불협화음에 대해 경영진이 보안관리팀의 손을 들어줬죠. 그렇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은 보안수준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진 대리는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보안수준 향상의 첫 번째 요인은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한다.



“기업 내의 보안 교육은 직급과 업무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경영진에게는 경영진이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만 선별해 그래프화하거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서인 경우에는 그들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주는 방법처럼 말이죠. 획일화된 보안교육은 무의미하다고 봐요.”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보안관리팀 진나니 대리는 특화된 보안교육이 기업 보안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한다.

■ ■ 직급, 분야에 맞는 보안교육 성과 거둬

하지만 경영진의 지지만으로는 강력한 보안정책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점도 있다. 실제로 사내 구성원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막강한 경영진의 지원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보안관리팀이 심혈을 기울인 것이 바로 ‘보안교육’이다.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보안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보안교육은 무의미하죠. 저희는 직책과 직무의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형식의 교육을 진행했고, 결국 1년 동안 지속되는 보안교육이 보안강화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요.” 진 대리는 보안활동에 전 직원을 동참시키기 위해 간부급, 중간 관리자, 실무자 등 다양한 사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맞춤형 소재를 개발해 왔다고 한다. 가령, 실무자들에게는 ‘경영진의 지시’라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기술 연구소의 교육에서는 회사 내에서 연구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존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방식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의 관련성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들의 보안교육은 이뤄진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에 씨앤에스테크놀로지의 보안은 기술적인 요소와 관리적인 요소가 잘 조합돼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 “보안업무, 비즈니스와 함께 가야죠”

물론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특히,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각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도, 그리고 업무 상 발생 가능한 보안의 흠을 막는 것도 쉽지 않다. “보안이 업무 프로세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요. 보안관리팀 역시 사내 업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주요 기술용어를 비롯해 각 부서의 업무 특성을 이해하려고 해요”라는 진 대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경영진의 경영 이슈를 점검하는 것은 보안관리팀의 필수 업무라고 한다.

“기업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안은 세뇌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대상과 필요한 수준이 정립됐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고 토론해 결국 직원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 이들이 보안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필수조건이죠”라며 진 대리는 적은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안 체계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보안교육이 절대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비록 자세히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씨앤에스테크놀로지에는 규모에 비해 많은 수의 보안장비가 구축돼 있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안장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또 교육을 통한 사내 구성원의 보안 학습효과가 더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때문에 정보보호에 대한 열정과 책임의식으로 똘똘 뭉친 이들 여성 3인조 보안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앤에스테크놀로지 사내 곳곳을 누비며, 더 많은 사람에게 한번 더 보안의 중요성을 설교한다. S